



# Global Goings-on

## 미국

### “노후공동신탁” - 노후보장의 한 선택 What's a Pooled Trust? A Way to Avoid the Nursing Home

은퇴한 지 수 년, 경우에 따라선 수 십 년이 넘는 베이비부머의 부모세대는 은퇴 후 소득만으론 증가하는 노후요양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

- ▶ 많은 자녀들이 노부모를 안전하고 안락한 가정에서 모시고 싶어하지만 정부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에는 자산이 많으면서 노부모에게 사설 홈케어(private home care)를 제공하기에는 넉넉지 않은 중산층에게는 어려운 선택
- ▶ 아직 잘 알려지진 않았으나 몇몇 주에선 자산을 포기하지 않고도 메디케이드를 통해 홈케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
  - 1993년에 입안된 연방법은 장애인이 자신

- 의 월소득 혹은 자산의 일부를 - 메디케이드가 허용하는액수를 초과한 금액만큼 - 특별한 공동신탁에 맡길 수 있도록 허용
- 이 후 장애인들은 신탁에 맡겨진 돈으로 월세, 모기지론, 혹은 케이블 방송료 등과 같은 비용을 지불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
- 반면, 메디케이드는 홈케어를 지불
- 공동신탁은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멍 조끼라며 뉴욕 주 가든시의 노인법 변호사 웬디 H. 샤인버그씨가 말해

- ▶ 공동신탁을 활용하는 데는 몇 가지 걸림돌이 있어
  - 첫째, 신탁에 가입하고 매월 비용청구서를 제출하는 데는 많은 서류작업이 요구돼 노인들은 젊은 친척을 의지해야
  - 둘째, 사망 후 신탁에 남은 금액은 비영리 기관이나 메디케이드로 돌아가
  - 주마다 연방법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어 현재 약 12개 주에 사는 65세 이상만 신탁에 가입할 수 있으며 메디케이드를 관장하는 규정도 복잡하고 주마다 차이가 있어 신탁운영의 효율성도 제각기 달라

- 주정부의 예산절감 노력 또한 메디케이드를 통한 홈케어 제공에 어려움이 돼

▶ 공동신택에 가입할 자격을 얻을 경우 삶의 질이 확연히 나아질 수 있어

- 메디케이드의 수혜를 받기 위해선 월 소득이 개인의 경우 \$767, 부부의 경우 \$1,117이 넘어선 안돼

- 이 금액을 넘어서는 수입은 먼저 의료비 지불에 사용되어야 해

- 그러나 노인에게 허용된 월소득으로 살아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

- 공동신택에 가입된 경우 매월 메디케이드 한정액 초과소득을 신택에 맡길 수 있어

- 신택은 여러 가지 개인비용을 지불해 줘

▶ 공동신택도 선택을 잘 할 필요가 있어 노인 요양 전문변호사나 지역의 비영리기관을 통해 가입

- 신택은 보통 운영비를 부과하는데 뉴욕 Nysarc의 경우 신택가입비로 \$200, 연간회비로 \$50, 월회비로 평균 \$60에서 \$75 정도 부과

- 모든 신택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니며 공동신택을 노후보장의 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내려야 할 결정

2010년 11월 4일 / The New York Times

<원문링크: <http://www.nytimes.com/2010/11/05/business/businessspecial5/05TRUST.html?ref=policy>>

## 영국

### 보건의료 관리: 일류 병원 경영을 위한 다섯 가지 원칙

#### Five simple rules for running a first-class hospital

▶ 환자의 건강상태나 병원의 경영 상태를 측정

하는 것과 그 원인을 발견하는 것은 별개

- 런던의 서부지역에 있는 해머스미스 병원은 영국의 의료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병원 중 하나 - 최근 토니 블레어가 부정맥으로 치료를 받았던 곳이며 런던의 응급구조대가 심장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을 이송하는 몇 안 되는 병원 중 하나

- 미국에서 스웨덴에 이르기까지 일류 병원들은 다른 병원과 성과에서 많이 차이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?

▶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사의 스테판 도건과 LSE(London School of Economics)의 존 밴리넨이 이 문제의 답을 찾으려 해

- 이들은 제조산업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월성 조사 기술을 활용해 미국, 영국, 캐나다, 프랑스, 독일, 이탈리아, 스웨덴에 소재한 1,200여 병원들을 조사

▶ 경영분야에서 최고의 점수를 얻은 병원들(사람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물건을 제조하는 곳인 것처럼 분석함)이 표준의료수행평

가에서도 최고의 점수를 얻어(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의 사망률)

- 이 점수는 문화와 나라에 상관 없이 명확한 결과를 보여 주어

## 연구진은 성공적인 병원 경영과 관련된 다섯 가지 주요 특징들을 찾아내

- ▶ 첫째는 경쟁 혹은 경쟁자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
  - 경쟁 병원을 열 곳 이상 언급한 병원 경영진이 별 다른 경쟁이 없거나 인식하지 못한 경영진보다 높은 경영 점수를 얻어
- ▶ 규모가 클수록 나아
  - 소규모 병원간의 경쟁은 병원의 서비스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
  - 연구진은 경영에 관한 한 규모가 클수록 성과가 높다는 사실을 발견
  -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병원보다는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병원,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병원보다는 1,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병원 더 높은 경영 점수를 얻어
  - 10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병원들은 경영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
- ▶ 사립 병원이 공립보다 경영 점수가 높아
- ▶ 의료종사자가 경영진으로 있을 경우 더 나은 점수를 얻어
  - 이탈리아에서만 의료종사자만이 병원의

경영진이 될 수 있어

- 의료종사자가 경영진으로 있는 병원은 그렇지 않은 병원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어
- 스웨덴에서는 병원 경영진의 93%가 전직 의사, 간호사, 혹은 임상 전문가 출신
- 미국, 캐나다, 독일에서는 그 비율이 71-74%, 프랑스는 64%, 영국은 58%

- ▶ 스태프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경영 점수가 높아
  - 높은 경영 성과를 위해서는 스태프가 어떤 일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

2010년 10월 21일 / The Economist

〈원문 링크: [http://www.economist.com/node/17306072?story\\_id=17306072](http://www.economist.com/node/17306072?story_id=17306072)〉

## 중국

### 세계 최대 규모의 인구조사, 이주민의 증가로 어려움 증폭 Gauging China's population is made harder by waves of migrants

- ▶ 약 6백만의 조사원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인구조사를 10일간 수행
  -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민들이 증가해 인

- 구조사가 더 어려워져
- 조사의 정확성에 논란의 여지가 남을 것
- ▶ 중국이 공산국가가 된지 여섯 번째의 인구 조사
  - 2000년에 시행된 마지막 인구조사도 느슨해진 국내이주 통제로 인해 정확한 조사가 어려웠음.
  - 그 후로도 농촌지역을 떠나 도시로 이주해 6개월 이상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85% 증가하여 1억4천5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
- ▶ 이주민들은 거주지 이전 신고에 따른 번잡한 행정과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당국에 이주 사실을 알리지 않아
  - 특히 중국의 엄격한 가족계획규정을 어기고 낳은 자녀들에 대해 밝히는 것을 두려워 해
- ▶ 인구조사 당국은 인구조사원들이 취득한 개인 정보는 비밀이 유지되며 다른 정부기관에도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어
  - 그러나 국영매체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조사원을 회피하고 있어
  - 인구조사의 사전데이터는 4월에 발표될 예정
  - 문제는 필연적으로 실제보다 낮게 나올 인구의 처리
- ▶ 2000년 인구조사는 실제보다 1.81% 정도가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해
  - 따라서 실제 조사인구수에 2천2백만 명을

- 더해 총 인구를 12억7천만 명으로 보고
-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“검은 아이들”로 불려 - 부부가 한 자녀 정책을 어기고 낳은 아이들
- 당국은 샘플조사를 통해 2009년 말 인구를 13억3천만 명으로 추정
- ▶ 이번 인구조사에서는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주한 곳과 고향에서 동시에 집계돼 비교 조사가 가능해 지며 최초로 외국인들도 포함시켜
  - 그러나 학계에서는 정부가 추정하는 공식적인 수에 인구조사 데이터를 끼어 맞출 것이라고 말해
  - 중국의 출산율은 공식적인 추정치보다 훨씬 낮을 수도 있어
- ▶ 조사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조사원들이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만큼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만큼 충분치 않아 문제
  - 2000년에 3억5천만 가구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했던 수와 동일한 수의 조사원들이 이번에도 4억 정도의 가구를 조사해
- ▶ 이주민뿐 아니라 중국의 중산층도 공식적인 가구조사를 원치 않아
  - 베이징에서는 이미 스트레스로 인해 일을 포기한 인구조사 직원도 있어

---

2010년 11월 4일 / The Economist  
 <원문링크: [http://www.economist.com/node/17421569?story\\_id=17421569](http://www.economist.com/node/17421569?story_id=17421569)>